

2. 봉수(烽燧)

봉수는 봉(烽 : 횃불)과 수(燧 : 연기)로써 급한 소식을 전하던 전통시대의 통신제도이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불을 피워 낮에는 연기로,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하였다. 우역제(郵驛制)와 더불어 신식우편과 전기통신이 창시되기 전인 전근대국가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보편적인 통신방법이었다. 역마(驛馬)나 인편보다 시간적으로 단축되었고, 신속한 효용성을 발휘하여 지역의 급변하는 민정상황이나 국경의 적의 동태를 상급기관인 중앙의 병조에 연락하였다. 봉수제는 국가의 정치·군사적인 전보기능을 목적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의 개인적인 의사표시나 서신전달에는 사용할 수 없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149년(고려 의종 3)에 처음 사용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세종 때 정식으로 봉수제도를 마련하였다.

조선시대에는 봉수제의 확립과 더불어 5구분법으로 봉수내용을 구분하였고 해상과 육상을 구별하였다. 해상의 경우에는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1거(炬), 왜적이 해중에 나타나면 2거, 해안 가까이 오면 3거, 우리 병선과 접전하면 4거, 육지로 침입하면 5거로 하였다. 육지의 경우는 적이 국경 밖에 나타나면 2거, 변경에 가까이 오면 3거, 국경을 침범하면 4거, 우리 군사와 접전하면 5거씩을 올리도록 하였다. 전라도에서 한양까지 직봉경로는 제5거로 다음과 같다. 순천 돌산도→ 홍양 장기산→ 장흥 천관산→ 진도 여귀산→ 무안 고림산→ 영광 홍농산→ 옥구 화산→ 양성 괴태곶→ 양천 개화산 등의 경로를 거쳐 한성 목멱산에 도달하는 과정을 거쳤다.

1) 성황당산(城隍堂山) 봉수

성황당산은 일명 봉화산이라고도 하며, 순천 시가지의 동쪽에 있는 산이다. 이 산의 정상은 해발 355.3m 인데 정상의 남쪽에 있는 봉우리의 꼭대기에 봉수가 있다. 이 봉수는 『체종실록지리지』에 나오지 않고 1530년에 편찬된 『진중동국여지승람』에 “성황당산 봉수는 순천부의 동쪽 10리에 있고 동쪽으로 광양 건대산에 응하고 서쪽으로는 다만 관문에 보고한다.”고 한 것으로 보아 적어도 16세기 전반에는 개설되어 있었다.

또한 『체종실록지리지』 권8에 “순천도호부… 봉화 사처(四處) 돌산(在府東西淮白也北淮城頭), 성두(北淮進禮), 진례(北淮光陽件臺山), 백야(西淮長興八嶺山)”라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 성황당산 봉수는 순천부의 남해안에서 일어난 일을 돌산도→ 성두산→ 진례산→ 우대산을 거쳐 순천부에 알리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이 봉수대 서쪽 바로 아래에는 현재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으며 봉수대는 1990년 11월에 내성과 함께 복원되었다. 복원된 원형 연대(煙臺)는 높이 2.2m, 아랫지름 4m, 윗지름 2.7m 이며 남쪽에 6개의 계단이 있다.

봉수대가 있는 곳과 봉화산의 정상 사이는 말의 안장처럼 휘어져 좁지만 평평한 대지를 이루고 있다. 이곳에는 많은 고석와편들과 회청색 경질토기들이 흩어져 있다. 이 와편들은 골이 깊은 평행사선문이 시문된 백제계 와편, 와도(瓦刀)로 밖에서 분할한 통일신라시대의 와편 그리고 수지문의 고려시대 와편 등 다양한 시기의 다양한 문양이 시문된 것들이다. 특히 기와 등에 명문이 시문된 와편들이 다량 흩어져 있는데 탁본 결과 ‘관(官)’, ‘정해년(丁亥年)’, ‘일지두(日志豆)’, ‘오(五)’, ‘축오(丑五)’, ‘월일(月日)’ 등의 문자가 판독되었다. 이들 명문은 이 유적의 성격을 밝히는데 절대적인 자료들로 평가되나 아직까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격 파악은 후일로 미룬다. 이러한 와편뿐만 아니라 초석으로 보이는 석재들도 있어 건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

이 건물지는 이곳에 봉수대가 있었으므로 이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승평지』 군정조에 “봉수군일백삼십팔명”이란 기록이 있다. 이 봉수군은 순천도호부에 있는 4곳 돌산·성두·진례·성황당산을 말하고 있으므로 성황당산 봉수에는 대략 30여 명 정도의 봉수군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봉수대가 설치된 16세기 전반부터 『승평지』가 편찬된 17세기 전반까지의 상황이므로 건물지에서 이 시기로 편년되는 와편들이 출토되어야 하는데, 지표에는 조선시대의 와편들이 없고 대부분 고려 이전 시기의 와편들만 있다. 따라서 봉수군들은 와가(瓦家)에서 주둔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이 건물지는 다른 시기, 다른 용도의 건물이었을 것이다.

『승평지』 인물조에 후백제의 김충은 “견훤에게 벼슬해 벼슬이 인가별감(引駕別監)에 이르렀고 죽어서 부의 성황신이 되었다.”고 하였다. 봉화산 정상 부근에 근래까지 사당이 있었고, 이 사당에는 김충과 박난봉의 초상화를 모셔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김충과 박난봉은 후백제와 고려의 인물이므로 이 건물지는 이 사당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통일신라시대의 와편과 백제시대의 와편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삼국사기』 잡지(雜志) 제사조(祭祀條)에 신라는 “삼산(三山)·오악(五岳) 이하 명산대천을 나누어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를 지낸다.”, “천자는 천·지와 천하의 명산대천을 제사하되, 제후는 사직과 자기 영지 내에 있는 명산대천만을 제사한다.”는 기록이 있다. 물론 이 기록에서 순천지역의 인근에서 제사를 지낸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신라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백제도 일찍부터 명산대천에서 제사를 지냈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일찍이 큰 산이나 강가에서 제사를 지낸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순천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집단들(백제시대 삽평군, 통일신라시대 승평군의 치소는 흥내동에 있는 해룡산으로 추정됨)도 일찍부터 큰 산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며, 그 장소는 바로 고석와편과 토기들이 산재해 있는 성황당산 정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곳 정상은 당시 치소로 추정된 해룡산을 비롯해서 현 순천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이 고을의 안녕을 빌기 위한 제사장소로서는 최적지로 꼽힌다. 성황당산이란 이름은 김충이 죽은 후에 부의 성황신이 되었고 그 후예들이 성황당이란 사당을 짓고 제사를 지낸 고려시대부터 생긴 이름으로 추정되며 봉화산은 봉수대가 설치된 후, 즉 조선 후기에 명명된 것으로 추측된다.

2) 개운산(開雲山) 봉수

개운산 봉수는 조선시대 낙안군 소속의 봉수로 별량면과 낙안면 경계에 위치하고 있다. 개운산 봉수에 대한 전거(典據)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통국여지지』의 “남응흥양현팔전산(南應興陽縣八殿山)”과 『허지도서』의 “개운산봉수금폐(開雲山烽燧今廢)” 등을 들 수 있다.

위의 기록에 따르면 개운 봉수는 직접 개운산에서 조망한 적변(賊變)을 남쪽의 흥양 팔전산 봉수(현 고흥군 영남면 양사리 팔영산)에 전달하던 제5거 간봉(間峰)이었다. 한편 『체종실록지리지』 낙안군 봉수조에 “군 남쪽에 임시 봉수가 있는데 남쪽으로 장흥부 입전산(入巔山) 봉수에 준한다.”는 기록이 있어, 임시 봉수와 개운산 봉수가 같은 봉수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나, 『신증동국여지승람』 낙안군 산천조에 “개운산이 군의 동쪽 1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방향으로 볼 때 별개의 봉수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개운산 봉수는 대략 『신증동국여지승람』이 편찬되기 이전에 설치되었다가 『허지도서』가 편찬되는 1759년(영조 35) 이전에 폐지된 것으로 추정된다.

체중실록지리지』.
친중동국여지승람』.
충평지』.
허지도서』.
통국여지지』.
강남악부』.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
춘천·승주향토지』.
주암댐 수몰지구 지표조사보고서』.
충주군 문화유적지표조사』.
춘천시의 문화유적』.
춘천의 마을유래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